



북방 민족의 침입과 극복

1 거란의 침입을 극복한 과정

(1) 고려와 거란의 관계

- 고려는 건국 초부터 북진 정책을 추진하여 거란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 태조 왕건은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을 비난하면서 거란에서 보낸 사신을 귀양 보내고, 예물로 가져온 낙타를 굶겨 죽게 하였습니다. 발해가 멸망한 후 고려로 내려온 발해 유민은 고려의 왕권 강화에 큰 힘이 되었어요.
- 만부교 사건으로 양국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만부교는 고려가 거란에게 선물 받은 낙타를 묶어 두고 굶겨 죽인 장소예요.

(2) 거란의 1차 침입

- 배경 : 고려가 송과 교류하자 거란은 고려를 침략하였습니다.

결과

- 서희는 거란 장수 소손녕과 담판을 벌여, 고려가 송과 관계를 끊고 거란과 교류할 것을 약속하고 거란을 물러나게 하였습니다. **자료 1**
- 고려는 압록강 동쪽에 있는 여진을 몰아내고 강동 6주에 성을 쌓아 영토를 압록강까지 넓혔습니다.



▲ 거란의 침입과 격퇴

- 거란은 여러 차례에 걸쳐 고려를 침입했어요.

(3) 거란의 2차 침입

배경	고려가 송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자 거란이 다시 침입하였음.
결과	고려는 개경이 함락되기도 하였지만, 물러가는 거란군을 양규가 크게 물리쳤음.

(4) 거란의 3차 침입

배경	거란이 강동 6주를 돌려 달라고 하며 고려를 세 번째로 침입하였음.
결과	강감찬은 전세가 불리해져 후퇴하는 거란군을 추격하여 귀주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음(귀주 대첩, 1019년).

- 천리장성 축조** : 거란의 침입을 물리친 고려는 압록강에서 동해안까지 천리장성을 쌓아 외적의 침입에 대비하였습니다.

2 여진의 위협을 극복한 과정

- 고려와 여진의 관계 : 여진은 고려를 부모의 나라로 섬기다가, 세력을 넓혀 고려의 국경을 자주 위협하였습니다.

(2) 여진 정벌의 과정

- 윤관은 **별무반**이라는 부대를 이끌고 여진을 물리쳤습니다(여진 정벌, 1107년).
- 고려는 여진을 몰아내고 차지한 땅에 9개의 성을 쌓고 고려의 영토로 삼았습니다. 고려는 여진족이 동북 9성을 돌려주기를 청하고, 계속된 침입을 막아 내기도 어려워서 결국 9성을 돌려주었어요.



▲ 「청경입비도」 : 윤관이 여진을 물리친 뒤 9성을 쌓고, '고려지경'이라고 새긴 비석을 세워 국경선을 표시한 일을 조선 후기에 그린 그림.

자료 + 고려와 요(거란)·여진·원(몽골)의 관계



고려는 북쪽 지역에 살던 북방 민족들과 대립하였습니다.

자료 1 서희의 담판

고구려의 옛 땅은 거란의 것인데 고려가 차지하고 있다. 또 고려는 거란과 맞닿아 있는데 왜 송과 교류하는가?

고려는 고구려의 후손이다. 압록강 근처도 고려 땅인데 여진이 차지하여 거란과 국교를 막고 있다. 여진을 쫓아내어 길이 열리면 교류하겠다.



목적은 송을 치는 것이니 고려와의 전쟁으로 힘을 낭비할 수 없지. 협상하고 떠나야겠군.

송과 싸우기 전에 우리와의 관계를 안정시켜야 해서 싸움이 아닌 대화를 원하는 속사정을 다 알고 있다.

용어 사전

1 담판

서로 맞선 관계에 있는 쌍방이 의논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함.

2 천리장성

고려가 외적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 북쪽 국경선에 쌓은 성

3 축조 (築 쌓을 축, 造 지을 조)

쌓아서 만들.

4 별무반

윤관이 여진 정벌을 위하여 조직한 기병(말을 타고 싸우는 병사) 중심의 부대로, 기병, 보병, 승병 등으로 구성되었음.